



JARA NEWS

December 2018, No. 130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1 F. Yaesu KT Bldg. 1-1-8,
Yaesu, Chuo-ku, Tokyo JAPAN 103-0028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JARA의 기타지마 사장, 인도에서 강연

JARA의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은 최근, 인도·뉴델리에서 개최된 인도 금속 재활용협회(MRAI, Metal Recycling Association of India) 등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강연했다. 이 회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MRAI와 인도 자동차제조업협회(SIAM,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의 임원들과 더불어,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도의 경제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

기타지마 사장은, JARA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방영하며 활동 개요를 소개하는 한편, 일본의 재활용 부품의 유통 네트워크 등을 설명했다. 또한, 강연을 통한 환경 기여로 식목을 하였으며, 자원 보존으로 이어갔다.

C02 삭감 수치 (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 10월

3,447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인도의 신차 시장은, 현재 약 400만 대에서 2030년에는 1천 만대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도 국내의 사용 후 자동차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IAM과 MRAI는, 일본의 선진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반영한 사용 후 자동차의 적정 처리에 관심을 보인다 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15일)

아시아자동차환경포럼, 첫 인도 개최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회의인 ‘제11회 아시아자동차환경포럼(AAEF)’이 1일, 인도·뉴델리에서 시작되었다. 이 포럼이 인도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테마로, 일본을 포함한 7개국의 자동차 재활용 사업자와 행정, 학술 기관, 자동차 메이커 등의 관계자 약 200명이 정보 교환을 한다.

일본 측으로는, 아시아자동차환경포럼 일본 위원회(위원장=유정수(劉庭秀), 도호쿠대학(東北大学大学院) 교수),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연합(NPO·JARA, 다카하시 사토시(高橋 敏) 이사장)의 이사와 회원들이 참가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2일)

JARA, BP·견적 세미나를 개최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스·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시즈오카현 스소노시(静岡県 裾野市)의 아이오이닛

세이도와자동차연구소(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自動車研究所) (히가시후지센터(東富士センター))에서, ‘차체 정비/판금 도장(BP)·견적 기술 세미나’를 3일간에 걸쳐 개최했다. 외관이나 외장 부품의 손상 등 20만 엔 정도가 되는 견적 작성을 위한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4회원 8명이 참가했다.

이 세미나의 개최는 2번째이다. 재활용 부품의 수요처인 BP사업자와 정비 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견적을 산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일상 업무 가운데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장 알맞은 부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진다.” (JARA)라는 점에서 작년부터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막과 도료의 종류와 도장 시의 부스 사용 상황 등을 근거로 한 견적서의 작성, 손상의 정도와 위치, 구조로부터 수리의 난이도를 산출하여, 견적 금액을 산출하는 강의를 했다.

또한, 수강자는 2명이 1조가 되어 실제 차량에 발생한 손상 부위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수리 난이도를 산출하는 강습도 받으며, 견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수리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수리·도장 공임을 고려한 재활용 부품의 가격 설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견인 업무와 차량 인수에서 대략적인 수리 금액이 필요해졌을 때 신속한 견적이 업무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여겨, 동사는 견적 방법의 습득을 촉구 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8일)



--- JARA 제휴 리빌트 업체 소개 ---



큰 폭으로 확장한 VG 모터실에서 가변 노즐을 리빌트



분해한 가변 노즐, 구성 부품 하나 하나를 확인

회전 영역에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엔진 배기량의 다운사이징 화에서도 저속 토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디젤 엔진(DE) 자동차로 채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VGS 터보 차저에도 약점이 있다. 가변 노즐은, 무운할과 고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모를 일으킨다. 엔진이 금속 마모가 되어, 금속 조각이 배기 가스로부터 가변 노즐로 들어가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스톱 앤 고(Stop & Go)가 자주 쓰여지는 시가지 중심의 주행이 많은 소형 트럭과 밴, 신차에서 10년 가까이 지났거나 총 주행 거리가 50만 킬로미터가 넘는 중대형 트럭·버스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터보 테크노 서비스에는 VGS 터보 차저 탑재 차량의 증가와 함께 리빌트 터보 차저의 거래 문의가 늘었다. 이치카와 사장은 “예전에는 경차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전체의 70~80%는 트럭·버스 용의 문의가 많다.” 라고 말하고 있다. 취급 품목의 구성비가 바뀌었다.

◆VG 모터실의 기기 배치 최적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한 VG 모터실은, 코어로 불리는 손상된 터보 차저를 세정한 후에 운반되어 온다. 가변 노즐을 분해하여, 구성 부품을 하나하나 점검한 후에, 마모와 변형 등을 확인한다. 손상된 것뿐만 아니라, 규정 치수에 미치지 못하는 구성 부품은 신품으로 교환하고, 용접하여 조립한다. 조립한 후에는 검사를 거쳐, 가변 노즐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VG 모터실은, 규모를 확대함과 더불어,



공장 내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사용하는 검사 기기와 용접기 등의 배치를 최적화했다. 이에 따라 “증원을 하지 않고 작업 효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다.” (이치카와 사장)라고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

◆공장 내에 TTS 테크노 센터 병설

TS그룹은 터보 테크노 엔지니어링 부지 내에 ‘TTS 테크노 센터’를 병설하고 있다. 공장 견학과 함께 거래처나 정비 사업자 등을 위하여 터보 차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설이다. 트레이닝 룸에서는, 터보의 컷 모델과 DVD 등을 이용하여 터보 차저의 구조와 기능, 트러블 슈팅 등을 해설한다. 엔진 결함의 영향으로 터보 차저의 고장 재발을 방지하는 것과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럭·버스에서도 전동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지만, 장거리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트럭·버스는, 승용차보다 클린DE 자동차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TS그룹은, 품질을 중시함과 동시에 공급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새로운 고객 만족(CS) 향상으로 이어간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1일)

병설하는 TTS테크노 센터의 트레이닝룸



터보테크노서비스, 가변 노즐 터보의 리빌트 부품 공급 체제 확충

TTS그룹의 터보 테크노 서비스(Turbo Techno Service Co., Ltd, 이치카와 미즈호(市川 瑞穂) 사장, 도쿄도 오타구(東京都大田区))는, 가변 노즐(VGS) 터보 차저의 리빌트 부품의 공급 체제를 확충한다. 그룹 회사에서 터보 차저의 리빌트 사업을 하는 터보 테크노 엔지니어링(니시 가즈미(西 和己) 사장,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埼玉県桶川市))이 10월, 가변 노즐을 리빌트하는 ‘VG 모터실’의 면적을 종래의 규모보다 약 5배로 확장하여, 가변 노즐 부위의 리빌트 공정의 작업 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 트럭·버스 용 VGS 터보 차저의 리빌트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설비 증강을 통해, 그룹 전체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주행 형태와 연수에 따라 고장이 발생

VGS 터보 차저는, 종래형의 터보 차저로서 부족한 저속토크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저속 시에 노즐을 닫아 배기 유속을 올리는 것으로 로터의 회전을 높여, 낮은

와타나베 사장은 “45년간, 여러 면에서 도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친척분 그리고 저 3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1988년에 전국 200사의 부품 유통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으로, 커다란 자극을 받으며 성장했다. 또한, 여러분 덕분에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카렉크를 사원들과 더불어 키워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와타나베 히로키(渡邊 寛樹) 사장은 “전국에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회의 자리를 즐겨 주셨으면 한다.” 라고 인사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다카하시 상회(高橋 商会)의 다카하시 사토시(高橋 敏) 회장은 “당시, 30대였던 와타나베 사장이 우리 회사에 견학을 왔을 때, 매우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 시대가 변화하는 가운데, 각사는 아들들이 회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100년에 한 번이라는 이 변혁기를 극복해 나가고 싶다.” JARA의 가타지마 소쇼 사장은 “와타나베 히로키 부사장은 JARA 집행부에

서 활약해 주고 있다. 카렉크와 우리들이 함께 일해 나가는 것으로 배움도 늘며, 더불어 성장해 나아가고 싶다.” 라고 각각 축사를 전했다.

또한, 축하회에 앞서, 푸르덴셜생명보험(ブルデンシャル生命保険)의 도요타 데츠야(豊田 哲野) 씨를 강사로 초청하여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강연 내용을 열심히 경청하였다.

카렉크는, 1973년에 와타나베상회(渡辺 商會)로 창업했다. 1979년에 법인화하여, 1982년에 와타나베 사장이 대표 이사로 취임했다. 2000년에 주식회사 카렉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03년에는 SPN(현·JARA)에 가맹. 2004년 이와키시에 있는 요시마공업단지(好間工業団地)에 본사를 이전 확장하였다. 2014년에 제2공장을 신축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때에는 부품 창고 등에 피해를 보았으나, 피해 차량의 인수 업무에 매진하는 등 부흥 지원에 임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11월 15일)



와타나베 사장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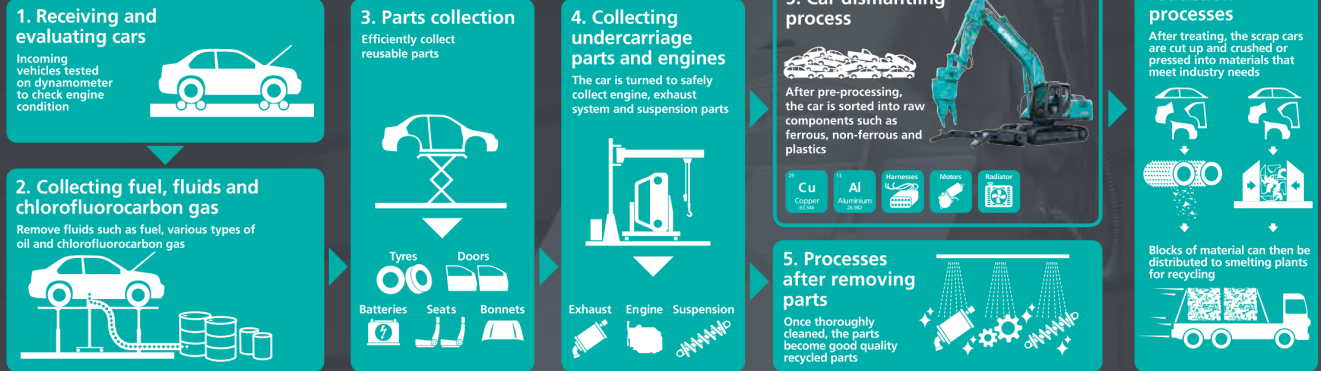
카렉크가 45주년 전환기를 축하하는 기념 축하회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하는 카렉크(Carec Co., Ltd.)(와타나베 가즈히로(渡邊 和寛) 사장, 후쿠시마현 이와키시(福島県いわき市))는 최근, 이와키 시내에서 ‘창업 45주년 기념 축하회’를 개최했다. 현재 가맹하고 있는 JARA그룹의 회원을 비롯하여 거래처 등 150명이 참석하여, 전환기를 맞이하는 기념일을 축하했다.



Dismantling process flow chart

How the Car Dismantling machin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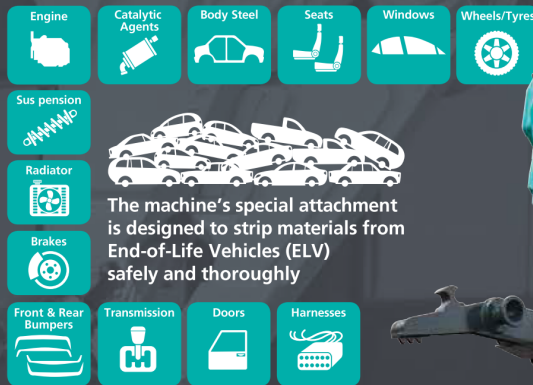
The Evolution of car dismantling industry by Kobelco

Four times* the vehicle dismantling capability compared with hand dismant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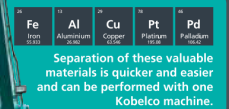
* In one day (Kobelco test figures)

15 vehicles > One operative working by hand.

60 vehicles > One operative in a Kobelco Car Dismantling machine.



Improved recovery rate of rare earth metals



株式会社 小松建設機械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成都神鋼工程機械(集團)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